

특 집 >>>

나의 재능이 당신에게 보탬이 되는 길

-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유 혜 민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사서
hyemin-00@hanmail.net

1.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의 고조

최근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과 활동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해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된 봉사단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느새 시민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단순 봉사활동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2. 성인자원봉사 활동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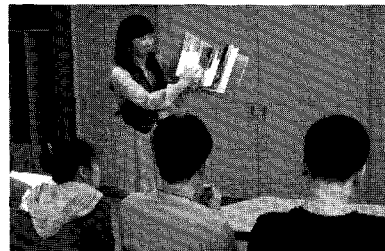
2.1 자투리 시간을 자아개발의 시간으로

김해의 각 시립 도서관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개관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온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프로그램과 도서관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인자원봉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유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성인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전

국적인 단체인 '색동어머니회'와 장유도서관 독서동아리 '그림책 사냥터'가 대표적이다. '색동어머니회'와 같은 단체는 전국적인 지회를 가진 대단위 자원봉사단체로서 동화구연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자발적 독서동아리에서 시작된 '그림책 사냥터'는 독서토론 뿐 아니라 도서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다.



[그림 1] 색동어머니회의 활동 : 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



[그림 2] 그림책사냥터의 활동 : 은혜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이외에도 '아가들의 스토리타임'이라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위한 성인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색동어머니회'나 '그림책사냥터' 등 기존 자원봉사단이 좀 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다면 '아가들의 스토리타임'은 단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하는 일반 어머니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소속된 단체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동화구연을 위한 이론적 지식은 없지만 이용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은 어느 단체 못지않다. 총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월 1회 1시간씩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준다. 주부들에게도 크게 부담 없는 시간배분과 무의미했을 1시간을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해하던 봉사자들이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좀 더 능숙하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더 좋은 책을 읽어주려고 고심하는 모습에서 '아가들의 스토리타임'이 점차 많은 이용자들의

특 집 >>>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또 지금 까지도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일반 이용자들의 문의를 많이 받는다. 현재 프로그램의 횟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도서관의 여건상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관심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도서관 프로그램에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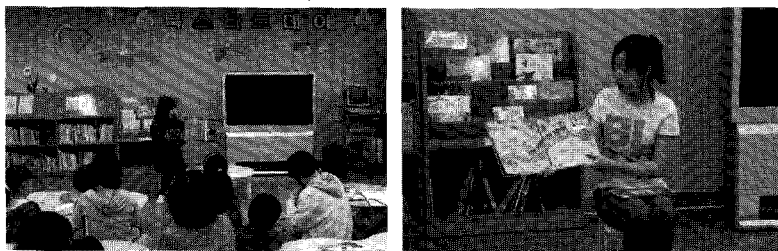


[그림 3]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 주 1회 실시되는 아가들의 스토리타임

3.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사례

3.1 차별화 된 봉사활동 : 청소년 '재능나눔미단'

장유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최근에 조직되었음에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재능나눔미단'이다. 김해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구성된 재능나눔미단은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에 도서관이나 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단지 서가정리에서 청소등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이며 일회성인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장유도서관의 재능나눔미단은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도서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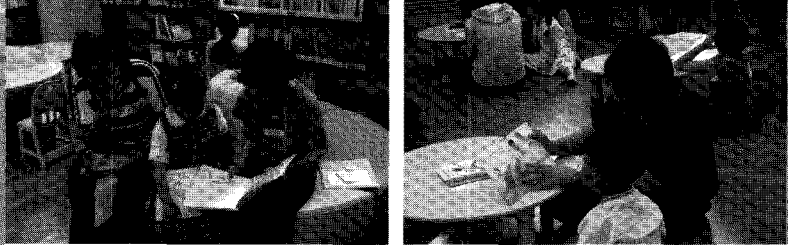
[그림 4] 청소년 재능나눔미단의 활동 : 유아실 이용자들을 위한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3.2 어떻게 '재능나눔미단' 이 될 수 있을까?

청소년 재능나눔미단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김해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면접과 면담을 통해 자신의 활동영역을 결정한다. 활동영역은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페이스페인팅, 연극, 종이접기, 풍선아트 등 기존에 제시된 것 외에 어느 영역에도 제한이 없다. 단,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이 아니라 정말 잘 하는 영역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면접을 바탕으로 매달 변경되는 프로그램에 맞게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한다. 두 달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재능나눔미단은 예상한 것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음 오전 11시에 한 번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 현재 오후 2시에도 개설되어 하루 2번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재능나눔미단 봉사신청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자 프로그램 횟수를 늘렸음에도 워낙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없음을 여전히 안타깝다.

현재 수업이 없는 토요일 11시와 2시에 시행되는 청소년 재능나눔미단의 자원봉사 활동은 영어그림책 읽어주기가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고, 7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에 다수를 상대로 영어그림책을 읽어주던 것에서 나아가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시간이 끝난 후 개인을 상대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영어로 대화하며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한다. 현재는 일대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의 호응도가 훨씬 높아졌다.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한 몫 한 것이다.

특 집 >>>



[그림 5] 청소년 재능나눔미단의 활동 : 이용자 개개인을 위한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3.3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필요

그동안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일회성에 머물렀던 반면 재능나눔미단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존의 봉사활동과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 청소년 재능나눔미단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는 도서관 대출권수 확대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각종 도서관 행사시 우선 참여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의외로 학생들은 이런 혜택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단지 프로그램의 주체로서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즐기고, 남들과 차별화 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용자와 봉사자 모두가 재능나눔미단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예전에도 그러했듯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정해주는 봉사활동 시간에 비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살리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흔치 않다. 그런 점에서 재능나눔미단이 앞으로 장유도서관에 생겨날 더 많은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시발점이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상생을 위한 도서관 자원봉사

그동안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접하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앞으로 도서관에서의 봉사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단순히 청소년과 성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주체가 되어 조직되는 것, 둘째,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서관 이용법이나 청구기호 등 기본적인 지식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서 보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몇 가지의 보완을 통해 앞으로 도서관에서의 봉사는 자기희생이 아니라 자기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며 도서관과 이용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이번호 '인터뷰'는 지면관계상 쉽니다.